

2015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의 생활

메시지 4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여 사람의 마음 안에서의 왕국이 신성한 씨의 자람

성경: 살전 3:13, 잠 4:23, 마 13:3-9, 19-23

- I. 성경에 따르면 자람은 건축과 동일하다.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신성한 씨, 곧 왕국의 씨의 자람에 의해 발생한다 — 요일 3:9, 골 2:19, 엡 4:15-16, 막 4:26, 눅 17:20-21.
- A. 에베소서 3장 17절은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요소로 하고 우리로부터 나온 어떤 것을 재료로 하는 건축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 묘사되었다. 주님은 생명의 씨이신 그분 자신을 사람들의 마음, 즉 땅에 뿌리셨다. 이것은 그분이 그들 안에서 자라고 사시며 그들 속에서부터 표현되시기 위한 것이다 — 마 13:3.
1. 길가는 세상적인 통행으로 굳어져서 왕국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데에 열리지 않는 마음을 상징한다. 새들은 굳어진 마음에 뿌려진 왕국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 악한 자 사탄을 상징한다 — 마 13:4, 19.
 2. 흙이 얇게 덮인 바위는 왕국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얕은 마음을 상징한다. 그런 마음의 깊은 속에는 바위들 — 감추어진 죄들, 개인적인 욕망들, 자기 추구, 자기 연민 — 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 씨가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리는 것을 방해한다 — 마 13:5, 20-21.
 - a. 내리쬐는 해는 환난이나 박해를 상징한다(마 13:21). 내리쬐는 태양열은 뿌리 내리지 못한 씨를 마르게 한다.
 - b. 태양열은 일단 씨가 깊이 뿌리를 내린 후에는 곡식을 자라고 익게 하지만,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때에는 자라고 익게 하는 태양열이 씨에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
 3. 가시덤불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를 상징하는데, 그런 것들이 말씀을 극도로 숨막히게 하여 마음에서 씨가 자라는 것을 막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 마 13:7, 22, 눅 12:15-21.
 4. 좋은 땅은 세상적인 통행으로 굳어지지 않고 감추어진 죄들이 없으며 이 세상의 염려도 없고 재물에 속지 않는 좋은 마음을 상징한다. 그러한 마음은 그 땅 구석구석에 말씀을 받아들여 이 말씀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백배나 거두게 한다 — 마 13:8, 23.
- B. 그 씨는 땅의 자양분으로 자랄 수 있도록 땅에 뿌려진다. 결과적으로 그 산출물은 씨와 땅으로부터 나온 요소들의 구성체이다 — 마 13:23.
- C.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느 정도의 영양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시기 위하여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기 위한 준비였다. 하나님은 신성한 씨를 위한 땅인 사람의 마음과 함께 인간적인 영양분을 가진 사람의 영을 창조하셨다 — 비교 벤전 3:4.
- D.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는 정도는 신성한 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씨에 얼마나 많은 영양분을 주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가 더 많은 영양분을 공급할수록 그 씨는 더 빠르게 자랄 것이고 더 많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 시 78:8, 마 5:3, 8:.
1. 우리가 우리의 혼, 곧 우리의 타고난 사람 안에 머문다면 신성한 씨의 성장을 위한 어떤 영양분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우리의 속사람에 이르고

우리의 영에 주의를 기울이며 우리의 영을 훈련한다면 영양분이 공급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거처를 정하실 것이다 — 엡 3:16-17, 롬 8:6, 딤후 4:7, 비교 유 19.

2. 생명의 씨이신 주님이 우리의 충만한 누림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자라시도록 하려면 우리는 주님께 완전히 열어야 하며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처리하도록 그분께 협력해야 한다.

E. 한 면에서 하나님은 요소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강화시키시며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영양분을 제공한다. 이러한 두 가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 존재 안에서 그분의 내재적인 건축 — 그분의 집을 건축하시는 것 — 을 수행하신다 — 엡 3:16-19.

II. 마음은 사람의 내적인 부분들의 집합체, 사람의 주요 대표자, 사람의 대행자이다.

A.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혼 — 생각, 감정, 의지(마 9:4, 히 4:12, 행 11:23, 요 14:1, 16:22)—에 우리의 영의 한 부분 —양심(히 10:22, 요일 3:20) —이 모두 더해진 구성체이다.

B.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과 그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상태와 근원적이며 내재적이며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1. 영의 훈련은 오직 우리의 마음이 활동적일 때에만 이루어진다. 사람의 마음이 냉담하다면 영은 그 속에 갇히고 영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없다 — 마 5:3, 8, 시 78:8, 엡 3:16-17.

2. 혼은 인격 자체이지만 마음은 활동중인 인격이다. 마음은 우리의 온 존재의 대행자이며 대리 행정관이다.

3. 우리의 신체의 활동들과 운동들은 우리의 육체의 심장에 달려 있다. 이와같이 우리의 일상 생활과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는 방식은 우리가 어떤 심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C. 마음은 생명의 입구이자 출구, 곧 생명의 '스위치'이다.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영 안에 있는 생명이 감추어지고 생명의 법은 자유롭게 일할 수 없으며 우리의 존재의 모든 부분에 아무런 장애없이 도달할 수 없다. 생명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해도 이 큰 능력은 우리의 작은 마음에 통제를 받는다 — 잠 4:23, 마 12:33-37, 비교 겔 36:26-27.

III. 교회 생활, 곧 왕국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을 살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함에 있어서 나무랄 데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 살전 3:13.

A. 하나님은 변치않는 분이시지만 타고난 출생에 따른 우리의 마음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나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가변적이다 — 비교 딤후 4:9-11.

B. 자신의 타고난 인간적인 생명에 따를 때 마음이 확고부동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변하기 때문에 결코 신뢰할 수 없다 — 램 17:9-10, 13:23.

C. 우리의 마음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흠이 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이 흠이 없는 마음이다 — 시 57:7, 108:1, 112:7.

D.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의 마음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새롭게 된다 — 겔 36:26, 고후 4:16.

E. 우리의 마음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는 영에 의해 계속해서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거룩하게 되는 상태, 하나님께 분별되고 하나님께 점유되고 하나님께 소유되며 하나님으로 적셔지는 상태 안에서 세워지고 건축될 수 있다 — 딤후 3:5, 롬 6:19, 22.

IV. 교회 생활, 곧 왕국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을 삶에 있어서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처리함으로써 "거룩하게 하시는 분"의 내적인 운행에 협력해야 한다 — 히 2:10-11, 시 139:23-24.

A.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하신다.

1.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육체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에게 고기같은 마음, 곧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 겔 36:26.

2.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목이 뻗뻗하거나 반역적이지 않고 주님께 복종적이며 순종적인 것을 의미한다 — 비교 출 32:9.
 3. 부드러운 마음은 세상적인 왕래로 딱딱해지지 않은 마음이다 — 마 13:4.
 4.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시기 위해 그분의 사랑을 사용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킬 수 없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 환경을 통하여 그분의 손을 사용하신다 — 고후 5:14, 고후 4:16-18, 히 12:6-7, 비교 렘 48:11.
- B.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1. 순수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다. 순수한 마음은 하나님 외에는 사랑하거나 선호하거나 갈망하지 않는다 — 시 73:25, 비교 렘 32:39.
 2.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일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께 죄를 범하는 것과 그분의 임재를 잃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 시 86:11, 사 11:1-2.
 3.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어야 하며 우리는 다른 어떤 동기도 갖지 말아야 한다 — 마 5:8.
 4. 우리는 반드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한다 — 딤후 2:22, 딤펢 1:5, 시 73:1.
- C.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신다.
1. 사랑하는 마음은 그 마음 안에서 감정이 주님과 개인적이고 애정어리고 사적이며 영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며 하나님을 목말라하며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이다 — 시 42:1-2, 아 1:1-4.
 2. 우리는 반드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고 지속적으로 새로워져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새롭고 신선한 사랑을 가질 수 있다 — 고후 3:16, 영한동반 찬송가 #546, #547.
 3. 모든 영적인 체험들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떤 종류의 영적인 체험을 갖는 것도 불가능하다 — 비교 엡 6:24.
 4. 주님을 위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말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고 온전케하며 장비시킨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극도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으로 채워질 것이며 그분으로 넘쳐 흐르게 될 것이다 — 요 21:15-17, 마 26:6-13, 28:18-20.
- D.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신다.
1. 평안한 마음은 양심에 거리낌이나 유죄판결이나 비난할 것이 없는 마음이다 — 행 24:16, 요일 3:19-21, 히 10:22.
 2.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용서와 씻음을 받을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중단없이 누리게 될 것이다 — 요일 1:7, 9, 딤펢 1:5.
 3.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실행함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며 그것은 사실상 평안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수비하시고 우리가 고요하고 안정되도록 지키시는 것이다 — 빌 4:6-7.
 4. 우리는 한 새 사람을 입기 위해 서로를 용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 골 3:13-15.
- V. 거룩하게 하시는 영의 지속적인 새롭게 하심에 의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함에 있어서 나무랄 데 없이 세워져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새로움을 가진 새 예루살렘(영원한 왕국)과 신성한 본성의 거룩함을 가진 거룩한 성이 되고 있는 것이다 — 계 21:21, 요 5:11-12, 벧후 1:4, 히 2:10-11.